

# 현대車, N 라인업 확대... 아반떼·코나·투싼 ‘환골탈태’

(換骨奪胎)

21일부터 ‘N 시티 서울’ 운영  
내달 쏘나타 N 한정판 에디션 공개  
아반떼 N, 280마력·제로백 5.3초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세단 라인업 모델을 동시 출격하면서 브랜드 확장에 나선다. 아반떼 N과 코나 N의 출시를 맞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고성능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한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은 14일 온라인을 통해 아반떼 N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영상과 함께 아반떼 N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N Day를 통해 공개된 코나 N은 실용성을 겸비한 고성능 핫 SUV이다. 가격은 3418만원이다. 아울러 N 상품 라인업 확장과 함께 투싼 N 라인도 함께 출시하며, 국내 고객들의 고성능 모델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아반떼 N에 2.0T 플랫파워 엔진을 장착했다. 이 엔진에 탑재된 터보 시스템은 기존 대비 지름이 5mm 증대된 52mm의 터빈휠과 2.5mm만큼 면적이 증대된 12.5mm의 터빈 유로를 적용하고 실린더 블록의 형상 및 재질 개선 등을 통해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이로 인해 약 5500rpm부터 최대출력을 유지시켜주는 플랫파워 특성이 적용돼 가속구간에서 아반떼 N의 잠재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반떼 N은 플랫파워 엔진에 8단 스텝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가 적용돼 최고출력 280마력(ps), 최대토크 40kg·m의 동력성을 갖췄다. N 그린 슈프



아반떼 N.

트(NGS)를 작동할 경우 터보 부스트압을 높여 최대 290마력까지 출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켜 준다. 이로써 N 라인업 중 최고 수준인 250km/h의 최고속과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3초만에 주파가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주행성을 완성해냈다. 또 N 사운드 이퀄라이저(NSE)로, 운전자는 주행 중 실제보다 더 실감나는 다이내믹한 엔진음을 들을 수 있다.

잘 달리는 주행성능 만큼이나 제동 성능에도 신경을 썼다. 360mm 직경의 대구경 브레이크 디스크에 고마찰 패드가 적용돼 고성능 차량에 걸맞은 동급 최고의 제동 성능을 확보했다. 냉각 효율 향상을 위한 브레이크 에어 가이드 구조와 함께 더스트 커버에 냉각용 흡을 적용하고 면적 또한 최적화함으로써 가혹한 주행에서도 일관된 제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아반떼 N은 기본차의 도전적인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했다. 디자인의 경우 전면부는 기본차 대비 블랙트림부를 확대

하고 범퍼 하단부를 낮게 가로지르는 립 스포일러가 고성능의 안정적인 스탠스를 선보인다. 측면부는 앞 범퍼부터 이어지는 N 전용 레드 스트립의 연결감이 한층 더 낮은 자세를 완성해 금방이라도 앞으로 치고 나갈 것 같은 모습을 갖췄다. 후면부에서 N 전용 원타임 스포일러는 사이드 스커트, 리어 디퓨저와 함께 주행 시 부딪히는 공기를 정돈해 주어 최적의 공력 성능을 구현함과 동시에 고성능차의 차별화된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실내는 N 스티어링 휠, N 슈퍼터, N 시트 등 N 브랜드 전용 아이템을 적용해 최적의 운전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아반떼 N의 판매가격은 M T 사양 3212만원, DCT 사양 3399만원이다. 지난 4월 N데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코나 N은 실용성을 겸비한 고성능 핫 SUV로 가격은 3418만원이다.

투싼 N 라인도 보다 많은 고객이 N의 감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공개된 ‘디 올 뉴 투싼’에 N의 스포티한 감성을 담아낸 디자인 차별화 모델



코나 N.

/현대자동차

이다.

내·외장에 N 라인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사이드 가니쉬 ▲19인치 알로이 휠 ▲싱글 트윈립 머플러 ▲리어 턴시그널 램프 디자인 ▲스티어링 휠 ▲스웨이드 가죽시트 ▲블랙 헤드라잉 ▲도어트림 스티치 칼라 ▲메탈 페달 ▲메탈 도어스커프 등이 적용돼 N 라인만의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존재감을 갖춰냈다.

투싼 N Line의 가격은 ▲가솔린 1.6T 모델 프리미엄 3009만원, 인스퍼레이션 3276만원이며 ▲디젤 2.0 모델 프리미엄 3200만원, 인스퍼레이션 3467만원 ▲하이브리드 1.6T 프리미엄 3345만원, 인스퍼레이션 3612만원이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행사도 개최한다. 현대차는 오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아반떼 N과 코나 N, 투싼 N 라인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전시 공간 ‘N 시티 서울’을 운영한다.

이어 오는 8월 국내 개봉 예정인 영화 ‘스네이크 아이즈: 지.아이.조’에 신스

틸러로 등장한 쏘나타 N 라인의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더 블랙’ 역시 N 시티 서울 특별전시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이번 N 시티 서울은 N 브랜드의 가치와 고성능차 문화를 종합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복합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고객들이 N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직관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는 부산 지역 숙박과 연계한 N 차종 시승 프로그램 ‘N 스테이 부산’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에서 N 브랜드 체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 부사장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은 지금까지 고객에게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단련해왔다”며 “성능 향상 요소들을 대거 적용한 아반떼 N은 일상부터 고성능 서킷주행까지 모두를 누리고자 하는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3대 新성장 동력 ‘친환경·전지·신약’ 선정... 2025년까지 10兆 투자

### LG화학 온라인 기자간담회

양극재·분리막 등 포트폴리오 확대  
LG에너지솔루션 연내 상장 추진

LG화학이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선정했다. 향후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연내 상장 계획도 밝혔다.

LG화학은 14일 이와 관련 온라인 생중계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ESG에 기반한 지속 가능 성장 분야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참석했다.

LG화학은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비즈니스 ▲전지 소재 중심의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신약을 선정했다. 해당 분야에만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3대 신성장 동력의 선정은 ESG에 부합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화학은 먼저 세계 1위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6조 원을



14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대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투자한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양극재부터 분리막,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CNT 등까지 폭넓게 육성한다. 양극재 사업 관련 구미공장(연산 6만 톤)을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26년 26만 톤으로 작년 기준 4만 톤 대비 7배가량 늘어난다.

분리막 사업은 시장성을 모두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M&A(인수 합병), JV 등을 검토 중이며 글로벌 생산 거점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화학 사업 분야의 CNT 생산 규모도 올해 1,700

톤에서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한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4월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도전체 시장 공략을 위해 1,200톤 규모 CNT 2공장을 증설 완료했다. 연내 3공장 착공도 준비한다.

신 부회장은 “올해 양극재 사업의 매출은 작년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화 전략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며 “여러 사업 부분에 산재해 있던 배터리 소재 관련 사업의 자원, 역량을 첨단산업본부로 일원화해 역량과 잠재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IPO(기업공개) 일정에 대해서도 연내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부회장은 “지난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이미 접수했다”라며 “순조롭게 된다면 빠르면 연내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 상장하더라도 LG화학이 절대적인 지분 70% 내지 80% 이상을 보유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바이오 소재 및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등 지속가능성 비즈니스에 3조 원을 투자한다. 먼저 I SCC Plus의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Bio-balanced SAP(고흡수성수지) 제품을 이달부터 본격 생산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식물성 바이오 재생 원료와 화석연료를 기초 원료로 함께 사용해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페플라스틱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이너보틀과 화장품 용기의 플라스틱 자원을 100% 선순환시키는 에코 플랫폼을 구축한다. LG화학은 신재생에너

지 산업 소재 시장에서도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명과학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한 글로벌 신약 회사로 도약해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 사업에만 1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한다.

특히 강점을 지닌 당뇨, 대사, 항암, 면역 4개 전략 질환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도 올해 11개에서 2025년 17개로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신 부회장은 수소 사업 진출 관련 “전체 밸류 체인 중에서 사실은 소재 솔루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분명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크게 직접 수소 생산, 그리고 유통에 들어가는 쪽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특히 그린수소의 경우 친환경적으로 된다고 볼 때 거기에 LG화학의 소재를 중심으로 한 기술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밸류 체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